

축제의 주제공연 발전방향 연구

Performances of the Festival Theme Development Direction Research

변정민(중부대학교)

차 례

1. 서론
2. 축제의 주제공연 장르 분석
3. 축제의 주제공연 분석
4. 세계 공연시장의 성공요인
5. 결론

■ keyword : | Theme performance | Festival | Performing arts | Contents |

1. 서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축제는 555개가 진행되지만 지자체의 소규모 형태의 축제를 합산한다면 1500여개의 축제를 양산해 왔다. 축제에서의 주제공연의 형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관주도하에서 스타마케팅으로 관객을 집객 시키는데 연연해왔던 형태를 주제공연과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고, 관광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그 중 축제의 메인 콘텐츠를 육성함에 있어 주제공연 형태의 콘텐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제공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공연의 활성화는 작게는 축제의 중심 스토리가 될 수 있으며, 넓게는 축제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축제의 중심 키워드를 주제공연에 도입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공연의 형태로 완성되어지길 바란다. 축제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연콘텐츠를 육성하여 축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기존에 주제공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축제의 정체성확립에 대한 연구가 일부만 이었다. 이에 축제에서 주제공연이라는 메인콘텐츠를 개발시켜 보다 양질의 축제를 완성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축제에서 프로그램으로 나열되어 있는 콘텐츠를 함축하여 메인 콘텐츠로 완성해야 한다.

현재 국내 주제공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질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전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공연콘텐츠를 분석함으로써 주제공연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될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 축제의 공연형태를 분석하여 장르에 대한 적합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축제의 대표적인 주제공연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한다.

셋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콘텐츠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장점을 적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의 주제공연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성공적인 메인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한다.

2. 축제의 주제공연 장르 분석

주제공연이란 같은 주제나 서로 연관된 작품들을 묶어서 진행하는 공연 형식을 말한다.[1]

축제에서의 주제공연은 스토리가 축제의 주제와 연관되어있어야 하고 축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축제의 주제공연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극, 무용, 뮤지컬, 클래식음악, 대중음악, 퍼포먼스 등 많은 장르의 공연형태가 주제공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합성을 분석하였

다. 주제공연에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역축제의 대표적인 주제공연인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 백제 문화제, 수상뮤지컬 갑천, 부여서동연꽃축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외의 보령머드축제, 국제 푸드&와인페스티벌, 대전국제 기타페스티벌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축제에서는 주제공연의 형태가 다양하게 연출되었으며,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적합한 주제공연의 형태는 뮤지컬과 연극의 형태로 도출되었다.

각 주제공연을 분석하여 의미전달, 감정전달, 제작여건, 집객력을 토대로 3개 이상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 주제공연에서 장르의 적합성

공연장르	의미전달	감정전달	제작여건	집객력	적합성
연극	○	○	○	×	○
무용	×	○	○	×	×
뮤지컬	○	○	×	○	○
클래식음악	×	×	○	×	×
대중음악	×	×	○	○	×
퍼포먼스	×	×	○	○	×

특히 과거 많은 축제에서 대중가수가 집객에 효율적이라는 분석에 의해 적극 활용 되었으나, 높은 출연료와 일회성의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었다.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관람객과 운영진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대중가수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축제의 주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음악스타일과 일반적인 행사로 일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부분 개선되어진 점도 있지만 집객요인이라는 점 외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연극은 의미, 감정, 제작여건 등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볼거리제공에 적합하지 않고 집객에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중심 스토리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지녔다. 무용은 몸으로 추상적인 스토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주제공연의 형태로 적합하지 않았다. 클래식음악과 퍼포먼스 역시 제작여건은 좋았으나, 의미전달, 감정전달에서 축제의 스토리를 전달하기 힘들었다. 뮤지컬은 제작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가장 적합한 예라 할 수 있다. 뮤지컬은 종합예술의 형태로서 축제의 역사성, 사회성, 인간사의 희노애락(喜怒哀樂) 등 다양한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적합하며, 노래와 춤을 포함하고 있어 볼거리 제공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전개와 어우러져 야외무대에도 적합하다.

주제공연의 장르가 일괄적으로 성공을 장담하진 못하지만, 스토리 전개에 있어 장르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은 존재하였다.

3. 축제의 주제공연 분석

축제의 주제공연은 메인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면 상설화가 가능하며, 축제를 홍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축제는 관 주도하의 축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축제 혹은 주제공연 전체가 연속성 없이 변화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주제공연이 연속성을 갖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다른 주제와 다른 이야기로 새로운 주제공연을 만들게 되었다.

연속성이 없는 주제공연은 축제기간에 이벤트로 존재하게 되고 예산 또한 감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제공연을 대신해 집객만을 원하는 가수들의 공연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주제공연을 통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다시 시도되었다. 백제문화제의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가 대표적인 예일 수 있고 대전의 갑천 문화제가 수상 뮤지컬 ‘갑천’이라는 제목으로 4일간 공연하였다. 유성 온천축제에서는 무용과 퍼포먼스로 주제공연을 만들었고 대전 국제 기타 페스티벌은 가수와 공연팀을 중심으로 공연하였다. 권우직너페스티벌은 무용극으로 주제공연을 만들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각 축제마다 등장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주제공연은 축제에서 일정하게 시간을 정하여 공연되어지며 일회성이 아닌 축제가 끝날 때 까지 고정적인 콘텐츠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각 축제의 주제공연을 요약하고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주제공연은 일회성일 때보다 축제기간 동안 반복되어질 경우 관람객에게 파급효과가 컸다. 그 예로 “울산의 고래축제에서 전년 개막공연 1회 실시를 4회 실시로 확대운영 한 점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울산 고래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서 주말 관광객들에게 관람기회 확대 및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라는 축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공연시작 전 영상을 통해 공연 개요를 보여줌으로써 공연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공연관람 편의

를 위한 영상장치를 활용한 점은 프로그램 흥미를 높인 요인이자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울산 남구지역 어린이 및 주민들이 공연에 참여하였던 점과 주제공연과 태화강 수상 멀티쇼를 연계하였던 점은 울산고래축제의 야간시간대 대표 공연으로 인식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표 2. 주제공연분석 및 문제점

구분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장르	뮤지컬
기간	2012년 10월 1일~2012년 10월 14일
장소	진주 축석루 성벽 밑 수상특설무대
시간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7시30분, 9시30분
등급	전체관람가
출연	극단, 현장 연기자 외 다수
문제점	스토리의 단순함, CT 기술의 부재
구분	수상 뮤지컬 갑천
장르	뮤지컬
기간	2009년8월13일~2009년 8월 16일
장소	대전 서구 둔산동 갑천
시간	오후 8시
등급	전체 관람가
출연	극단, 현장 연기자 외 지역민 500여명
문제점	극 전개 방식의 미흡, 전문가 집단의 부족 문제
구분	부여 서동 연꽃 축제
장르	댄스극
기간	2012년 7월 19일
장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공남지
시간	오후 10시
등급	전체관람가
출연	무용수 다수
문제점	스토리전달방식의 부재, 특수효과에 치중함
구분	대백제 문화제
장르	난버벌 퍼포먼스
기간	2012년 9월 29일
장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구드래 공원
시간	개막공연 형태로 저녁 8시
등급	전체관람가
출연	극단, 댄서, 연기자 외 다수
문제점	스토리텔링의 부재, 일회성으로 인한 파급효과 없음
구분	견우적녀 페스티벌
장르	무용극
기간	2014년 8월 2일~2014년 8월 3일
장소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일원
시간	개막공연 형태로 저녁 8시
등급	전체관람가
출연	지역 댄서 다수
문제점	스토리텔링의 부재, 일회성으로 인한 파급효과 없음

위와 같이 주제공연은 일회성이 아닌 축제기간, 또는 축제 기간 외에도 상설로 공연되어진다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며, 이해도를 높였을 때 만족도가 높았다. 공연에서 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관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축제의 대표 공연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공연 및 상설공연을 추진해야 한다. 스토리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것 보다는 직접적인 대사 및 노래의 형태로 개발해야 된다.

4. 세계 공연시장의 성공요인

축제의 주제공연은 일반적인 공연과 똑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주제공연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연콘텐츠로서의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의 메인콘텐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민들과의 연계성이 밀접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공연 및 주제공연을 분석하여 장점을 받아들여 공연콘텐츠를 개발해야한다.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공연콘텐츠는 많지만 그 중 블루오션전략을 세운 태양의 서커스와 CT기술을 기반으로 한 블루맨,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만든 공연작품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인상시리즈를 통해 주제공연의 발전 방향을 설립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성공사례는 태양의 서커스 시리즈 중 ‘퀴담’[4]을 들 수 있다. 관련성 없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통적 서커스 쇼와는 달리 태양의 서커스 창작품은 연극 공연을 담은 테마와 스토리 라인을 갖추고 있었다.[5]

태양의 서커스의 성공신화는 발상의 전환에서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서커스의 여러 가지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뮤지컬의 형태로 발전시켰다. 화려한 볼거리와 CT기술로 서커스를 또 다른 공연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 외에 태양의 서커스에서 만든 쇼들 중 ‘카 쇼’는 권선징악을 소재로 웅장하고 스킬있는 쇼다. 2008년 테마엔터테인먼트 협회로부터 위대한 기술의 성과라는 상을 받기도 하였다.

태양의 서커스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태양의 서커스의 성공요인

블루오션 전략	장르 및 특징
위험요소를 감소시킴	뮤지컬 형태
다양한 주제를 가진 레퍼토리	대중음악 사용(가사포함)
새로운 관객층 공략	신기한 서커스
서커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제거	새로운 형태의 무대
새로운 예술 형태 창조	스토리의 탄탄한 구성
스토리가 있는 서커스	CT 기술로 다양한 표현
공연 퍼포머의 아크로바틱한 무용	코믹적인 요소

두 번째 성공사례는 ‘블루맨 그룹’이다. 블루맨은 1980년대 말 뉴욕에서 필 스탠튼, 크리스 윈크, 매트 골드먼이라는 세 사람에게 의해 탄생하였다. 고무 모자를 쓰고 얼 굴과 머리를 파랗게 칠한 뒤 뉴욕 거리에서 공연을 시작하였는데, 한 감독의 눈에 띄어 오프브로드웨이 무대에 서게 됐고, 지금은 뉴욕, 보스톤, 시카고,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등에서 장기공연까지 하게 되었다. 국내에도 2011년 내한하기도 했다. 300개 도시 200백만 명이 환호한 대형공연으로 관객과 소통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공연이다.

블루맨 그룹의 성공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블루맨의 성공요인

인터랙티브적 요소	장르 및 특징
사전지식 10가지 스킬	년 버벌 퍼포먼스
퍼포먼스 따라하기	대중음악 사용(가사포함)
야광봉 흔들기	음파를 통한 시각적인 요소
합성	새로운 특수제작 악기
대형공을 치며 이동하기	스토리의 진화
대형 스크린의 아바타 따라하기	타악기의 개량
소리와 시각의 상호작용	CT 기술로 다양한 표현
관객의 합성을 사용한 연주	락 콘서트 점목
공연 퍼포머와 아바타의 상호작용	코믹적인 요소

‘블루맨’은 가장 대중적인 요소들을 자신들의 퍼포먼스에 응용하였다. ‘락’음악이라는 소재를 코믹하게 전개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CT 기술로 새로운 공연의 형태를 개척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화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신기한 악기들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성공사례는 중국의 ‘인상’시리즈이다. 장예모는 3개의 인상시리즈를 성공 시켰다. 먼저 계림지역에서 1일 2회 상설 공연되는 ‘인상유삼저’ 라는 공연이다. 600여명의 배우들이 이강과 12개의 산봉우리를 무대로 한 실경뮤지컬[6]이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장죽 유삼저 설화를 바탕으로 피꼬리의 환생으로 영민한 유씨 집안의 셋째 딸이 악덕한 지주와 맞서 싸우고 결혼하는 과정을 엮어 장죽, 묘죽, 요죽 등의 이 지역 소수민족문화를 1시간 반 정도의 시간동안 화려하게 펼쳐지는 야외 이미지 수상쇼이다.

두 번째는 인상시리즈 중 가장 화려한 ‘인상서호’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항저우 서호를 배경으로 한

공연으로 야외에 무대를 만들지 않고 자연그대로를 무대로 삼아 희노애락을 담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인상서호는 중국4대 민간설화에 포함되는 ‘백사전’[7]과 ‘양산백과 축영대’[8]다. 정략결혼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남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산수실경(山水實景)’ 공연이라 부른다.

세 번째는 ‘인상해남도’(하이난)이다. 하이난의 밤을 완성하는 하나의 백미로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이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몽환적이다. 관람객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연은 무대가 수영장으로 변하기도 하며 객석에까지 배우들이 다가가 기존 공연의 틀을 깨버리는 혁신적인 공연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공연들은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예로 든 것은 주제공연의 특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주제공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 공연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첫째, 지역의 특징, 장르의 특징, 스토리의 전개 방식에 상상력을 배양하여 블루오션전략을 세웠다는 점이다. 지역의 실경을 배경으로 제작되었거나, 설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공연으로 창조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스토리를 첨가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터랙티브적인 요소이다. 관객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다. 인터랙티브는 공연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참여를 함으로서 공연에 대한 애착과 관심도가 집중되며, 적극적인 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공연도 하나의 문화이다. 즉 문화는 살아있는 능동적 과정이다.[9]

셋째, CT기술의 도입과 볼거리 제공이다. 관객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을 즐겨워한다. CT기술은 작게는 소품에서부터 영상, 음향, 조명, 무대장치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어진다. 특히 멀티미디어 분야에서는 시각적이기 때문에 관객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넷째, 상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제공연의 나아갈 최종 목표는 상설화라고 할 수 있다. 주제공연의 성장은 축제와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다섯째, 축제에서 주제공연의 예산적인 면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인상유삼저’의 경우 계림지역의 주민을 참여시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였다. 즉 주민 참여형 공연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 2회 공연을 3600석

을 채우고 있으며, 공연을 보기위해 계림 지역을 찾는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 작품으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5. 결론

축제에서 주제공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콘텐츠의 우수성일 것이다. 공연콘텐츠가 대중들에게 사랑받게 되면 그 공연을 보기위해서라도 그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계림의 한 도시가 ‘인상유삼저’ 라는 공연으로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였고 특산품인 차가 유명해지게 되었다. 주제공연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일반 공연과 다를 수도 있다. 특히 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고 축제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데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제공연도 공연이며, 상설화가 되지 않더라도 공연자체의 퀄리티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축제의 주제공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첫째, 축제의 주제와 연관성 있는 스토리텔링과 상상력을 추가해야 한다. 주제공연은 축제의 한 메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축제와 밀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일반적인 사실이나, 이야기, 설화에 상상력을 추가하여 새로운 스토리 혹은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재창조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대중에게 사랑받고 새로운 CT기술을 첨가하여 놀랍고 신비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예술적인 공연이라도 대중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주제공연으로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는 관객들이 축제장에 와서 야외 및 실내에서 보고 싶은 공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놀랍고, 신비롭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공연을 원한다.

셋째,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것이다. 인터랙티브가 되지 않는 공연은 감동은 있되 소속감이 결여된다. 관객들은 보고 듣는 것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한다.

넷째, 지역민과 하나 되는 공연을 만들어야 한다. 공연을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축제의 일부이다.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야 말로 축제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며, 메인 콘텐츠인 주제공연이 성공하게 되는 요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되어진 주제공연의 성공 전략들은 주관적인 공연예술을 객관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주제공연의 성공전략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성공전략들의 사례가 논의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96420>, 국어사전
- [2] 배재대학교 축제연구소, 고래문화축제 보고서, 2014, pp 3-4
- [3] 위의 보고서, 같은 페이지
- [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85631&cid=42611&categoryId=42611>, 네이버 지식백과, “(Quidam)퀴담은 라틴어로 ‘익명의 행인’ 이라는 의미로서, 익명성의 사회와 소외된 세상을 따뜻한 화합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는 상상력이 가득한 작품이다. 서커스의 화려함, 테크놀로지, 매혹적인 디자인, 풍부한 음악이 줄거리와 함께하는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사양산업이던 서커스를 예술 장르로 승화시킨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의 <퀴담(Quidam)>은 1996년 캐나다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16개국에서 8백만 명 이상이 관람한, 태양의 서커스 작품 중에서도 가장 예술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퀴담>은 현대사회의 익명성과 소외된 세상을 희망과 화합이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놓는 여정을 그린다. 가족간의 사랑과 갈등, 화해 등 인간 보편의 감정을 보여주는 스토리에 극적인 서커스를 결합시켜놓았다.
- [5] 김위찬, 르네마보안, 블루오션 전략, 교보문고, 2005, p20
-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51525181&code=950100, ‘실경 뮤지컬’은 실내 무대가 아닌, 고택이나 경관이 뛰어난 ‘실경(實景)’을 배경으로 펼치는 뮤지컬을 말한다.
-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139&cid=40942&categoryId=32919>, [네이버 지식백과] 백사전 [白蛇傳] (두산백과), “작자 미상. 송대(宋代)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항저우[杭州] 시후호[西湖]의 뇌봉탑(雷峰塔)에 관한 백사 전설을 1736년(乾隆1)에 곤곡화(崑曲화)한 것이다.”
- [8] http://ko.wikipedia.org/wiki/%EC%96%91%EC%82%B0%EB%B0%B1%EA%B3%BC_%EC%B6%95%EC%98%81%EB%8C%80, 위키백과, “양산백과 축영대(梁山伯與祝英台)는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축영대(祝英台)와 양산백(梁山伯)의 슬픈 사랑이야기이다. 항저우의 시후(西湖)의 창차오(長橋)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장교애련(長橋哀戀)이라고 한다. 이 다리는 연인이었던 축영대(祝英台)가 양산백(梁山伯)과 수없이 작별하던 곳이기도 하다.”
- [9] 박만준, 대중문화의 이해, 경문사, 2005
- [10] 임대근, “웅장한 야외공연 ‘인상·서호’ 관람기” : 웅장하고 화려한 야외공연, 전국적으로 확산, Chindia journal. vol. 80, 포스코경영연구소, pp.26-28, 2013.04.
- [11] 서유미, “지역축제 바로잡기: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경우논집, 제37집, pp125-152, 2006.11
- [12] 최영화, “5.18 30주년 이후 5월 극 방향성 연구: 2011 광주

- 평화 연극제 주제공연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학회, 제36호 pp225-249, 2012,02,29
- [13] 조준희, “대형이벤트 중심 프로그램으로서 주제공연 연출 방향 연구”, 인문콘텐츠 제30호, pp153-179, 2013
- [14] 김경식, 김주아, “지역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제공연 개발 사례연구: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논문지 제8권1호, pp15-22, 2014.02
- [15] 임충일, “실경수상공연의 공간연출 및 디자인 연구: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주제공연 해상쇼 꽃피는 바다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예술전문사), 2013,02
- [16] 양건열, 비판적 대중문화론, 현대미학사, 1997
- [17] 김위찬, 르네마보안, 혁신과 성장, 비즈니스맵, 2009
- [18] 우석훈, 문화로 먹고살기, 반비, 2011
- [19] Henry Jenkins, Convergence Culture, 비즈앤비즈, 2005
- [19] <http://www.ulsanwhale.com/>, 울산고래축제
- [20] <http://djfestival.daejeon.go.kr>, 건우직녀축제
- [21] <http://www.baekje.org>, 백제문화제
- [22] <http://www.yudeung.com>, 진주 남강 유등축제
- [23] <http://piff.ipohang.org/piff>, 포항 불꽃축제
- [24] <http://www.bluman.com>, 블루맨
- [25] <http://www.cirquedusoleil.com>, Cirque du Soleil

저자 소개

● 변 정 민(Jungmin Byun)

정회원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음악학과 (작곡)
- 2008년 9월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박사과정)
- 2011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

<관심분야> : 공연콘텐츠, 실용음악